

故 강경대 열사 유가족



◇...사건에 연루된 유가족의 모습과 누나(왼쪽)의 모습

“저는 이젠 우리 경대를 저희 자식으로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경대는 더이상 저희의 아들만이 아니라 민중의 아들인 것입니다.”

지난 26일 명지대학교 집회 도중 경찰의 ‘쇠파이프’에 맞아 숨진 故 강경대 열사의 어머니는 사랑하는 자식의 죽음에 오열을 더뜨리면서 아들의 죽음의 헛되지 않아야 한다고 부르짖었다.

“학교에 가서 공부 열심히 하고 돌아오셨습니까?”는 쪽지를 집에 남겨 놓은 채 故 강경대 열사는 그토록 자상하신 부모님의 곁을 떠났다.

“현 정권은 누구든지 가리지 않고 정권에 반대하면 누구든지 가리지 않고 불법체포하고 심지어 살인까지 자행하고 있습니다. 이제 제 아들의 죽음을 계기로 모든 시민과 학생이 함께 일어나 민주주의를 위해 투쟁해야 합니다. 저는 지금껏 정치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민주주의에 대해 막연히 생각했던 용기없는 시민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경대를 통해 현정권의 부도덕성을 알았고 용기있는 민주주의가 될 수 있겠습니다”라며 아들에게 배운 민주주의를 위해 끝까지 몸바쳐 싸우겠다는 아버지의 말에서 가슴 뭉클함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

“경대의 죽음을 헛되이 하지 말아주세요”라는 목소리는 열사의 영정앞에 머무르는 듯...



대학에 들어온 지 두달도 안 돼, 이 땅의 현실에 눈뜨고, 실천을 위해 투쟁한 ‘작은 열사’ 故 강경대 열사는 정권의 폭압에 유명을 달리하였다. “무슨 수를 쓰든간에 우리 경대를 졸업시키겠습니다. 학교

에 경대가 공부하던 곳을 바라보는 비석이라도 하나 세워 한 이라도 풀어주고 싶습니다. 등 록금도 내고 졸업시키고 싶습니다”며 말을 잊지 못하고 아들의 영정을 우뚝켜니 처다보는 강군 아버지의 모습이 처절하기까지 했다.

“노태우는 이번 살인을 시인하고 사과해야 합니다. 또 살인에 직접 가담한 내부부장, 치안본부장, 시경국장 그 밖의 회관들을 모두 구속시켜야 노태우는 저와 대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라는 아버지의 말에서 현정권에 대한 단호한 의지마저 엿볼 수 있었다.

故 강경대 열사는 명지대 노동동아리 ‘따람’에서 활발히 활동하며 평소에도 친구들의 나태함에 애정어린 비판을 아끼지 않았다.

절구에 가까운 목소리로 울부짖는 어머니의 ‘경대의 죽음’을 헛되이 하지 말아주세요’라는 목소리는 열사의 영정앞에 한참 동안 머무르는 듯하였다. (김기태 記者)

오월가리 뜨겁게 할

□강경대 열사 사건일지

24일 상명여대에서의 연대발언을 끝내고 나오던 명지대 총학생회장이 경찰에 의해 연행되었다. 이에 26일 명지대학교 학원자주화 완전승리 및 총학생회장 구출을 위한 서부서 전격투쟁에서 전경에 밀려 후퇴하던 강경대(경계·1)학우가 담쪽으로 도망가다 백골단(시경 94중대) 5명에게 붙들려 전신을 구타당하였다. 이후 백골단들은 강학우를 끌고 가다가 그대로 달아나 버렸다. 강학우는 그 상태에서 심여걸을 정도 건다가 실신하였다. 이때 이미 얼굴은 피범벅이 되어 있었으며 동공이 풀어진 상태였다. 이후 보건소로 옮겨졌으나 맥박이 불안정하여 성가병원으로 이송하였으나 의사는 이미 이송중 사망으로 진단하였다.

곧바로 연세대 세브란스병원으로 시신을 이송, 안치하였다. 이후 검찰측에서는 사건의 진상을 축소, 왜곡하기위해 백골단

이후 안동병원 응급실로 다시 대구 경북대 부속병원으로 곧바로 호송되었다. 분신 이후 학내에서는 철야농성

시09분 열사는 눈을 감았다. 이후 경북대 병원에서 학생 2천여명은 ‘故 강경대 열사’ 폭력살인규탄 및 김영균 학우 분신투쟁 계속 15만

폭력정권의 희생양

故 강경대군과 분신열사 사건일지

5명을 구속하고 부검을 실시할 것을 유족측에 계속 요구하였다. 그러나 유족과 부검과는 무관하게 검안만을 실시할 것을 합의하고 만약 검안의 8인이 부검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질때 추후논의하기로 하고 검안을 5월1일 오후 5시25분에 시작하여 다음날인 2일 새벽 3시에 끝났다.

을 실행하였고, 경북대 부속병원에서는 대정총련소속 2백여명의 학우가 시수대를 조직하였다. 5월2일 9시경 호송관란후, 저녁8

학도 결의대회를 가졌다. □故 천세용 열사 사건 일지 (취재부)

“공격형 진압훈련 받았어요”



서울시경 제2기동대 12중대소속 군무중이던 의경 라운성(20)씨가 지난2일 연세대 범국민대체회의 기자회견장에서 “이것이 마지막이다”라는 양심선언을 했다. 이에 라씨의 양심선언 배경과 동기를 중심으로 인터뷰한 내용을 실는다. (편집자註)

정권퇴진이 폭력진압방지 지름길

대로 있던것이 이제는 다, 모자 대항으로 전원체포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라고 폭로 하였다.

이런 강경대군 살인사건에 대한 동료전경들의 분위기에 대해서는 “그런 얘들은 맞아 죽어도 싸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고 밝혔다.

동료전경과 이땅의 청년학생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을 묻자 “전경은 무리한 진압을 거부해야 하며 시민, 학생에게는 절대 폭력을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하고 “전경들의 실질적 배후조정자 노태우는 퇴진되어야 하며, 이는 청년학생들의 선전적 투쟁으로 가능한 것”이라며 연일 계속된 군부속에서의 해방된 평온함을 보여주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강경대 열사의 아버지 강민조씨는 라 의경의 말을 듣고 난후 “정말 용감한 결단을 내려준 것에 고맙다. 지금까지 라의경이 한일은 모두 노태우의 허수아비로서 시키는대로 따랐을 뿐이다. 이제 이렇게 양심선언의 자리에 선 모습을 보니 너무나도 멋있고 훌륭해 보인다. 그리고 지금 구속된 전경 5인은 선제로 경대를 죽인사람들이라고 할 수 없다. 그들은 식망되어야하고 책임자가 구속되어야 한다”라고 라씨를 격려했다.

87년이후 명세선언과 양심선언을 한 전경, 백골단 7명이 지난 4월30일 전경, 백골단 해체 및 애국전경들의 양심적 행동을 내용으로 살인적 시위진압거부와 양심선언을 촉구한 바 있다.

故 강경대 열사의 죽음은 노태우 현 정권의 공안통치를 뛰어넘는 신공안 통치에서 비롯된 것이며 더구나 공격형 시위진압과 경찰의 인권유린 사태에서 이미 예고된 것이다. (이희환 記者)

취재나수

언론보도의 기술(?)

◇...지난 2일 의경 라운성(20)씨가 ‘이것이 마지막이다’라는 제국의 양심선언을 발표하였다.

당시 라군은 몸서 불안한 마음으로 양심선언을 시작하였다. 특히 일간지기자들과 방송기자들은 교묘한(?) 유도질문을 계속했다. 카메라기자 역시도 백만화도들에게 하는 말이나 정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 제때 촬영을 멈추는 기술(?)을 유감없이 보여주었다. 그러나,

직업병 환자는 정신병자(?)

양심선언을 시작할때부터 단 한번도 양심선언 전경의 손은 놓지않은 강경대 열사 아버지의 뜨거운 손을 라군을 불안함에서 구할 수 있었다.

독가스의 천국 원진 ◇...세계노동절 102주년 행사에서 한눈에 노동자가 연사로 등장하였다.

지난 1일 오후2시 연세대 민주광장에서 있는 노동절행사 1부순서에서 연사로 등장한 사람은 원진대이온에서 회사설립 때부터 일하기 시작한 머리가

하얀 노동자였다. 노동자 曰 “이전까지도 원진에서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모두 CS₂(이산화탄소)가스에 의한 것이었다. 그런데, 그들은 모두 정신병자 취급을 받았다. 산업재해보상자로 인정받지 못했다”라며 이전까지의 상황을 설명하고 “CS₂가스 맛이 기가 막히게 좋네. 한도급만 마시면 정신병자가 되어버린다”며 독가스의 천국에선 더이상 살 수 없다는 말로 씩씩한 표정을 비쳤다.

한 노동자였다. 노동자 曰 “이전까지도 원진에서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모두 CS₂(이산화탄소)가스에 의한 것이었다. 그런데, 그들은 모두 정신병자 취급을 받았다. 산업재해보상자로 인정받지 못했다”라며 이전까지의 상황을 설명하고 “CS₂가스 맛이 기가 막히게 좋네. 한도급만 마시면 정신병자가 되어버린다”며 독가스의 천국에선 더이상 살 수 없다는 말로 씩씩한 표정을 비쳤다.

한 노동자였다. 노동자 曰 “이전까지도 원진에서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모두 CS₂(이산화탄소)가스에 의한 것이었다. 그런데, 그들은 모두 정신병자 취급을 받았다. 산업재해보상자로 인정받지 못했다”라며 이전까지의 상황을 설명하고 “CS₂가스 맛이 기가 막히게 좋네. 한도급만 마시면 정신병자가 되어버린다”며 독가스의 천국에선 더이상 살 수 없다는 말로 씩씩한 표정을 비쳤다.

한 노동자였다. 노동자 曰 “이전까지도 원진에서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모두 CS₂(이산화탄소)가스에 의한 것이었다. 그런데, 그들은 모두 정신병자 취급을 받았다. 산업재해보상자로 인정받지 못했다”라며 이전까지의 상황을 설명하고 “CS₂가스 맛이 기가 막히게 좋네. 한도급만 마시면 정신병자가 되어버린다”며 독가스의 천국에선 더이상 살 수 없다는 말로 씩씩한 표정을 비쳤다.

한 노동자였다. 노동자 曰 “이전까지도 원진에서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모두 CS₂(이산화탄소)가스에 의한 것이었다. 그런데, 그들은 모두 정신병자 취급을 받았다. 산업재해보상자로 인정받지 못했다”라며 이전까지의 상황을 설명하고 “CS₂가스 맛이 기가 막히게 좋네. 한도급만 마시면 정신병자가 되어버린다”며 독가스의 천국에선 더이상 살 수 없다는 말로 씩씩한 표정을 비쳤다.

한 노동자였다. 노동자 曰 “이전까지도 원진에서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모두 CS₂(이산화탄소)가스에 의한 것이었다. 그런데, 그들은 모두 정신병자 취급을 받았다. 산업재해보상자로 인정받지 못했다”라며 이전까지의 상황을 설명하고 “CS₂가스 맛이 기가 막히게 좋네. 한도급만 마시면 정신병자가 되어버린다”며 독가스의 천국에선 더이상 살 수 없다는 말로 씩씩한 표정을 비쳤다.

한 노동자였다. 노동자 曰 “이전까지도 원진에서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모두 CS₂(이산화탄소)가스에 의한 것이었다. 그런데, 그들은 모두 정신병자 취급을 받았다. 산업재해보상자로 인정받지 못했다”라며 이전까지의 상황을 설명하고 “CS₂가스 맛이 기가 막히게 좋네. 한도급만 마시면 정신병자가 되어버린다”며 독가스의 천국에선 더이상 살 수 없다는 말로 씩씩한 표정을 비쳤다.

한 노동자였다. 노동자 曰 “이전까지도 원진에서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모두 CS₂(이산화탄소)가스에 의한 것이었다. 그런데, 그들은 모두 정신병자 취급을 받았다. 산업재해보상자로 인정받지 못했다”라며 이전까지의 상황을 설명하고 “CS₂가스 맛이 기가 막히게 좋네. 한도급만 마시면 정신병자가 되어버린다”며 독가스의 천국에선 더이상 살 수 없다는 말로 씩씩한 표정을 비쳤다.

한 노동자였다. 노동자 曰 “이전까지도 원진에서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모두 CS₂(이산화탄소)가스에 의한 것이었다. 그런데, 그들은 모두 정신병자 취급을 받았다. 산업재해보상자로 인정받지 못했다”라며 이전까지의 상황을 설명하고 “CS₂가스 맛이 기가 막히게 좋네. 한도급만 마시면 정신병자가 되어버린다”며 독가스의 천국에선 더이상 살 수 없다는 말로 씩씩한 표정을 비쳤다.

한 노동자였다. 노동자 曰 “이전까지도 원진에서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모두 CS₂(이산화탄소)가스에 의한 것이었다. 그런데, 그들은 모두 정신병자 취급을 받았다. 산업재해보상자로 인정받지 못했다”라며 이전까지의 상황을 설명하고 “CS₂가스 맛이 기가 막히게 좋네. 한도급만 마시면 정신병자가 되어버린다”며 독가스의 천국에선 더이상 살 수 없다는 말로 씩씩한 표정을 비쳤다.

한 노동자였다. 노동자 曰 “이전까지도 원진에서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모두 CS₂(이산화탄소)가스에 의한 것이었다. 그런데, 그들은 모두 정신병자 취급을 받았다. 산업재해보상자로 인정받지 못했다”라며 이전까지의 상황을 설명하고 “CS₂가스 맛이 기가 막히게 좋네. 한도급만 마시면 정신병자가 되어버린다”며 독가스의 천국에선 더이상 살 수 없다는 말로 씩씩한 표정을 비쳤다.

한 노동자였다. 노동자 曰 “이전까지도 원진에서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모두 CS₂(이산화탄소)가스에 의한 것이었다. 그런데, 그들은 모두 정신병자 취급을 받았다. 산업재해보상자로 인정받지 못했다”라며 이전까지의 상황을 설명하고 “CS₂가스 맛이 기가 막히게 좋네. 한도급만 마시면 정신병자가 되어버린다”며 독가스의 천국에선 더이상 살 수 없다는 말로 씩씩한 표정을 비쳤다.

한 노동자였다. 노동자 曰 “이전까지도 원진에서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모두 CS₂(이산화탄소)가스에 의한 것이었다. 그런데, 그들은 모두 정신병자 취급을 받았다. 산업재해보상자로 인정받지 못했다”라며 이전까지의 상황을 설명하고 “CS₂가스 맛이 기가 막히게 좋네. 한도급만 마시면 정신병자가 되어버린다”며 독가스의 천국에선 더이상 살 수 없다는 말로 씩씩한 표정을 비쳤다.

한 노동자였다. 노동자 曰 “이전까지도 원진에서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모두 CS₂(이산화탄소)가스에 의한 것이었다. 그런데, 그들은 모두 정신병자 취급을 받았다. 산업재해보상자로 인정받지 못했다”라며 이전까지의 상황을 설명하고 “CS₂가스 맛이 기가 막히게 좋네. 한도급만 마시면 정신병자가 되어버린다”며 독가스의 천국에선 더이상 살 수 없다는 말로 씩씩한 표정을 비쳤다.

한 노동자였다. 노동자 曰 “이전까지도 원진에서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모두 CS₂(이산화탄소)가스에 의한 것이었다. 그런데, 그들은 모두 정신병자 취급을 받았다. 산업재해보상자로 인정받지 못했다”라며 이전까지의 상황을 설명하고 “CS₂가스 맛이 기가 막히게 좋네. 한도급만 마시면 정신병자가 되어버린다”며 독가스의 천국에선 더이상 살 수 없다는 말로 씩씩한 표정을 비쳤다.

한 노동자였다. 노동자 曰 “이전까지도 원진에서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모두 CS₂(이산화탄소)가스에 의한 것이었다. 그런데, 그들은 모두 정신병자 취급을 받았다. 산업재해보상자로 인정받지 못했다”라며 이전까지의 상황을 설명하고 “CS₂가스 맛이 기가 막히게 좋네. 한도급만 마시면 정신병자가 되어버린다”며 독가스의 천국에선 더이상 살 수 없다는 말로 씩씩한 표정을 비쳤다.

한 노동자였다. 노동자 曰 “이전까지도 원진에서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모두 CS₂(이산화탄소)가스에 의한 것이었다. 그런데, 그들은 모두 정신병자 취급을 받았다. 산업재해보상자로 인정받지 못했다”라며 이전까지의 상황을 설명하고 “CS₂가스 맛이 기가 막히게 좋네. 한도급만 마시면 정신병자가 되어버린다”며 독가스의 천국에선 더이상 살 수 없다는 말로 씩씩한 표정을 비쳤다.

한 노동자였다. 노동자 曰 “이전까지도 원진에서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모두 CS₂(이산화탄소)가스에 의한 것이었다. 그런데, 그들은 모두 정신병자 취급을 받았다. 산업재해보상자로 인정받지 못했다”라며 이전까지의 상황을 설명하고 “CS₂가스 맛이 기가 막히게 좋네. 한도급만 마시면 정신병자가 되어버린다”며 독가스의 천국에선 더이상 살 수 없다는 말로 씩씩한 표정을 비쳤다.

한 노동자였다. 노동자 曰 “이전까지도 원진에서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모두 CS₂(이산화탄소)가스에 의한 것이었다. 그런데, 그들은 모두 정신병자 취급을 받았다. 산업재해보상자로 인정받지 못했다”라며 이전까지의 상황을 설명하고 “CS₂가스 맛이 기가 막히게 좋네. 한도급만 마시면 정신병자가 되어버린다”며 독가스의 천국에선 더이상 살 수 없다는 말로 씩씩한 표정을 비쳤다.

한 노동자였다. 노동자 曰 “이전까지도 원진에서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모두 CS₂(이산화탄소)가스에 의한 것이었다. 그런데, 그들은 모두 정신병자 취급을 받았다. 산업재해보상자로 인정받지 못했다”라며 이전까지의 상황을 설명하고 “CS₂가스 맛이 기가 막히게 좋네. 한도급만 마시면 정신병자가 되어버린다”며 독가스의 천국에선 더이상 살 수 없다는 말로 씩씩한 표정을 비쳤다.

한 노동자였다. 노동자 曰 “이전까지도 원진에서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모두 CS₂(이산화탄소)가스에 의한 것이었다. 그런데, 그들은 모두 정신병자 취급을 받았다. 산업재해보상자로 인정받지 못했다”라며 이전까지의 상황을 설명하고 “CS₂가스 맛이 기가 막히게 좋네. 한도급만 마시면 정신병자가 되어버린다”며 독가스의 천국에선 더이상 살 수 없다는 말로 씩씩한 표정을 비쳤다.

한 노동자였다. 노동자 曰 “이전까지도 원진에서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모두 CS₂(이산화탄소)가스에 의한 것이었다. 그런데, 그들은 모두 정신병자 취급을 받았다. 산업재해보상자로 인정받지 못했다”라며 이전까지의 상황을 설명하고 “CS₂가스 맛이 기가 막히게 좋네. 한도급만 마시면 정신병자가 되어버린다”며 독가스의 천국에선 더이상 살 수 없다는 말로 씩씩한 표정을 비쳤다.

한 노동자였다. 노동자 曰 “이전까지도 원진에서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모두 CS₂(이산화탄소)가스에 의한 것이었다. 그런데, 그들은 모두 정신병자 취급을 받았다. 산업재해보상자로 인정받지 못했다”라며 이전까지의 상황을 설명하고 “CS₂가스 맛이 기가 막히게 좋네. 한도급만 마시면 정신병자가 되어버린다”며 독가스의 천국에선 더이상 살 수 없다는 말로 씩씩한 표정을 비쳤다.

한 노동자였다. 노동자 曰 “이전까지도 원진에서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모두 CS₂(이산화탄소)가스에 의한 것이었다. 그런데, 그들은 모두 정신병자 취급을 받았다. 산업재해보상자로 인정받지 못했다”라며 이전까지의 상황을 설명하고 “CS₂가스 맛이 기가 막히게 좋네. 한도급만 마시면 정신병자가 되어버린다”며 독가스의 천국에선 더이상 살 수 없다는 말로 씩씩한 표정을 비쳤다.

한 노동자였다. 노동자 曰 “이전까지도 원진에서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모두 CS₂(이산화탄소)가스에 의한 것이었다. 그런데, 그들은 모두 정신병자 취급을 받았다. 산업재해보상자로 인정받지 못했다”라며 이전까지의 상황을 설명하고 “CS₂가스 맛이 기가 막히게 좋네. 한도급만 마시면 정신병자가 되어버린다”며 독가스의 천국에선 더이상 살 수 없다는 말로 씩씩한 표정을 비쳤다.

한 노동자였다. 노동자 曰 “이전까지도 원진에서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모두 CS₂(이산화탄소)가스에 의한 것이었다. 그런데, 그들은 모두 정신병자 취급을 받았다. 산업재해보상자로 인정받지 못했다”라며 이전까지의 상황을 설명하고 “CS₂가스 맛이 기가 막히게 좋네. 한도급만 마시면 정신병자가 되어버린다”며 독가스의 천국에선 더이상 살 수 없다는 말로 씩씩한 표정을 비쳤다.

한 노동자였다. 노동자 曰 “이전까지도 원진에서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모두 CS₂(이산화탄소)가스에 의한 것이었다. 그런데, 그들은 모두 정신병자 취급을 받았다. 산업재해보상자로 인정받지 못했다”라며 이전까지의 상황을 설명하고 “CS₂가스 맛이 기가 막히게 좋네. 한도급만 마시면 정신병자가 되어버린다”며 독가스의 천국에선 더이상 살 수 없다는 말로 씩씩한 표정을 비쳤다.

한 노동자였다. 노동자 曰 “이전까지도 원진에서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모두 CS₂(이산화탄소)가스에 의한 것이었다. 그런데, 그들은 모두 정신병자 취급을 받았다. 산업재해보상자로 인정받지 못했다”라며 이전까지의 상황을 설명하고 “CS₂가스 맛이 기가 막히게 좋네. 한도급만 마시면 정신병자가 되어버린다”며 독가스의 천국에선 더이상 살 수 없다는 말로 씩씩한 표정을 비쳤다.

한 노동자였다. 노동자 曰 “이전까지도 원진에서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모두 CS₂(이산화탄소)가스에 의한 것이었다. 그런데, 그들은 모두 정신병자 취급을 받았다. 산업재해보상자로 인정받지 못했다”라며 이전까지의 상황을 설명하고 “CS₂가스 맛이 기가 막히게 좋네. 한도급만 마시면 정신병자가 되어버린다”며 독가스의 천국에선 더이상 살 수 없다는 말로 씩씩한 표정을 비쳤다.

한 노동자였다. 노동자 曰 “이전까지도 원진에서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모두 CS₂(이산화탄소)가스에 의한 것이었다. 그런데, 그들은 모두 정신병자 취급을 받았다. 산업재해보상자로 인정받지 못했다”라며 이전까지의 상황을 설명하고 “CS₂가스 맛이 기가 막히게 좋네. 한도급만 마시면 정신병자가 되어버린다”며 독가스의 천국에선 더이상 살 수 없다는 말로 씩씩한 표정을 비쳤다.

“남은자의 의무를 다해다오”

〈박승희 열사 유서〉

사랑하는 내 친구들아 나는 항상 너희가 자랑스러웠다. 옆에서 아무리 우리를 홍보해도 그들이 우리가 미워서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고 시새음이 라는 것을 알았기에 더 한층 너희가 자랑스러웠다. 슬퍼하며 울고 있지만은 말아라 그것은 너희들이 해야할 일이 아니다. 너희는 가슴에 불을 품고 싸워야 하라. 그 싸움이 내 혼자

만의 싸움이 아니라 2만학우 한 명 한명의 손을 잡고 하는 함께 하는 싸움이여야 하라. 내 항상 너희와 함께 하리니 힘들고 피곤더라도 나를 생각하며 힘있게 전진하라. *내 서랍에 코스모스 씨가 있으니 2만학우가 잘 다니는 곳에 심어주라 항상 함께 하고 싶다. 통일전군 47.4.27 승희

사랑하는 유·편식자들에게 이 시대에 우리는 눈물을 흘릴 여유가 없다. 지금 우리에게 열사는 필요없고 전사가 필요한 때다.

이 두마디 말이 항상 마음에 남아있었습니다.

끝까지 살아남아 열심히 싸우지 못하고 먼저 떠남을 그 어떤 말로도 시죄를 구할 수 없겠지요 하지만 제 길에 2만학우 한명 한 명에게 반미의식을 심어주고 정권타도에 함께 힘썼으면 하는 마음에 과감히 떠남니다. 불감증의 시대라고도 하고 무관심의 시대라고도 하는 지금 명지대 학우의 죽음에 약간의 슬픔과 연민을 가지다가 다시 제 자리로 인주해 커피를 마시고 풀리를 마시는 2만 학우가 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비롯되었습니다. 2만 학우의 손을 차레차레 잡고 열심히 싸워주십시오. 91수습위원 아이들이 나를 대신해 내 몸까지 편집실의 주인으로서 힘차게 살아라. 꼭. 선배들을 최종합니다. 선배들에게 힘되어 주는 후배는 못되었던 것 같습니다. 무거운 짐만 치워드리고 떠나는 것 같지만-올해 일정을 호트려 놓을 수도 있고, 마음을 아르게 해주는-살아 남은 자의 의무를 다해주시요. 먼저 갑니다. 최종합니다. 하지만 후회는 없습니다.

〈천세용 열사 유서〉

학우들이여, 이제는 불시다. 우리와 같은 학우들이 쇠파이프에 맞아 죽고 꽃다운 청춘을

불사를 동안 우리는 과연 무엇을 했습니까.

노태우 정권과 독점자본가들이 1천만 노동자와 4천만 민중형제들을 착취 수탈하고, 저항이 있는 곳마다 광복한 탄압을 휘두르는 동안 과연 우리는 무엇을 했습니까.

떨쳐 일어나십시오. 슬픔과 분노를 그 자체로 끝낼 것이 아니라, 현 정치권력에 맞서 정면투쟁·정면돌파해 나가십시오.

많은 할 일들이 남아있지만, 제 몫까지 여러분이 투쟁하여 준다 면 편안히 눈을 감을 수 있을 것입니다.

오직 민중의 힘으로, 민중의 손으로 노태우 살인정권을 타도하고, 새로운, 민중의 나라를 건설하는 날까지 힘차게 투쟁하십시오. 5/3 천세용

“나의 직책은 원유딜러...”

정보에 대한 정확한 분석력과 종합적인 판단력이 요구되는 원유딜러

지 금 시간 밤11시... 컴퓨터에서 연신 토해내는 기계음만이 동료들 모두가 퇴근한 사무실의 고요함을 깨뜨리고 있다.

국제정세의 기류에 따라 민감하게 변화하는 국제원유시장에서 원활한 원유수급을 위해 손발을 닦으며 거래를 성사시켜야 하는 나의 직책은 원유딜러...

컴퓨터를 통해 시시각각으로 입수되는 국제원유시장의 동향을 분석하고 원유의 품질, 가격 등을 비교, 예측하여 산유국에 구입의사를 타진하고 원유를 구입하기까지의 숨막히는 긴장의 연속이다.

신입사원 해외전지훈련에서 맺은 인연으로 수월해진 비즈니스

오늘은 원유수입국 다변화 전략의 일환으로 접촉한 중국측 석유회사로부터 받은 거래조건에 대한 결정사항의 검토가 끝나면 퇴근이다. 마침 이번이 거래하게 된 중국측 회사와는 남다른 인연이 있다. 2년전, 국제적인 감각과 안목을 키우기 위해 참가한 신입사원 해외전지 훈련시 방문했던 회사와 비즈니스 파트너가 될줄이야!

이번 거래상담은 한층 수월해질 것을 기대해 보며 해외전지훈련시 중국에서의 값진 체험들을 되새겨 본다.

선경에서 오셨습니까? 세계 반갑습니다!

우리 일행을 열매안고 반겨준 하얼빈 한인들과 나누었던 따뜻한 동포애. 23시간 동안 만주별관을 가로지르며 중국의 거대함을 다시금 일깨워준 하얼빈별관 베이징행 열차. 살아 움직이는 중국무역의 전초기지 상하이. 가나인 겨울잠에서 중국을 깨어나게 만든 수도 베이징에 남산대단 민주화와 개방의 물결들 모두가 소중한 체험으로 남아있다.

내게 처음으로 세계를 알게해준 신입사원 시절의 해외전지훈련... 지금도 귓가에는 아득히 펼쳐진 만리장성에서 광활한 대륙을 향해 목청껏 외치던 패기의 함성이 메아리쳐 들려 오는듯 하다.

오늘 퇴근길엔 서쪽하늘에 빛나는 별을 볼 수 있겠는가?

SUNKYONG 鮮京그룹

(주)신경·신경인스트라·주SKC·신경매그네틱·세라트위커칼·신경건설·주·유공·유공해운·주·유공가스·유공아코와악·주·유공상사